

신유형에 당혹 ... 올 수능 국어가 성패

9월 모의평가 지문 길어 체감 난도 높아

영어·수학은 평이하면서도 변별력 확보

1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마지막 모의평가를 접한 광주·전남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된 국어 영역의 경우 낯선 유형의 문제들이 선보인 데다, 지문도 길어 체감 난도가 훨씬 높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모의평가는 본 수는 출제 방향과 난도를 점칠 수 있는데다, 수시를 앞두고 지원 대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학생들은 이번 모·평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12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임해야 한다. 그만큼 시험장 곳곳에서는 긴장감이 묻어났고 예상을 벗어난 문제 유형이 출제된 영역의 시험 뒤에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다.

당장, 1교시 국어 영역을 접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달라진 지문 구성과 문제 출제 방식에 낯설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졌던 작년과 달리 공통시험으로 바뀌어 6월 모의평가 이후 다양한 유형에 면역력을 높여왔음에도, 신 유형의 생소함과 긴 지문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겪었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전남 일선 고교 교사들, 입시 전문 학원들도 6월 모평에 이어 낯선 문제 형태가 출제되면서 체감 난도가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안경섭 인성고 국어교사는 “지문도 길고 6월 모평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신유형 문제가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평가원은 EBS 연계율(70%)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EBS와는 전혀 다른 처음 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고 지문도 길어 체감 난도가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24년 문항의 경우 현대소설과 시나리오가 복합출제돼 학생들이 독해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1일 오전 8시40분부터 광주 66개·전남 105개 학교 등 전국 2088개 고등학교와 427개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광주 상일여고 3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학 영역은 평이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박영광 송덕고 수학교사는 “수학 영역은 6월 모평에 비해 최고난도 문항은 다소 쉬웠고 그 외 문항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았다”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21, 29, 30번 문제 중 29, 30번은 6월 모평에 비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투스교육도 “기존 출제 경향을 유지해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었다”는 자료를 냈다.

3교시 영어영역도 비슷해 강상훈 대동

고 영어교사는 “고난도 빈칸 추론 문항(34번)이 등급을 좌우할 문제지만 다른 문항은 6월 평가보다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인 송형래 국제고 교사는 “국어 영역은 6월, 9월 모·평 모두 어렵게 출제되면서 본 수능도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과목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연습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온 높게 측정’ 지적 풍암동 기상관측장비 옮긴다

4년만에 ... 인근 풍암생활체육공원으로 이전

광주지역의 타관측지점보다 기온이 높게 측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서구 풍암동 기상관측장비가 문제가 된지 4년 만에 이전, 설치된다. 풍암동 기상관측장비는 최고기온이 높게 관측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라 제기돼 왔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모두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월드컵경기장 인근인 풍암동 423-2번지에 설치돼 있는 ‘풍암동AWS’(방재용자동기상관측장비)를 오는 연말까지 500여m 떨어진 풍암생활체육공원(풍암동 20번지) 내로 옮긴다.

광주에서는 광주지방기상청(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ASOS(종합관측용자동기상관측장비, 고도 62m)와 조선대AWS(108m), 무등산 무등봉AWS(912m), 서구 풍암동AWS(63m), 광주과학기술원 AWS(32m), 광산구 용곡동AWS(30m) 등 6개 지점에서 기상관측을 하고 있다.

풍암동AWS는 4년 전부터 여름철이면 기온이 타지점보다 높게 관측돼 주변의 대표 관측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풍암동AWS 이전을 위한 비교관측 실험을 마

쳤다. 측정결과 풍암동AWS의 최고기온은 36.1도로 광주ASOS(34.8도)보다 1.3도 높았다. 평균기온과 최저기온도 각각 0.3~0.5도, 0.3도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지난 2009년 풍암동AWS가 설치된 이후 들어선 롯데아울렛 등 대형건물이 바람을 가로막고, 실외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과 나무 때문에 기온이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생활체육공원 내 관측장으로 이전하면 최고기온은 지금보다 1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 특보 운영에 정확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흥군, 현충공원 등 조성

수의계약 특혜 예산 낭비

고흥군이 현충공원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3월 공사금액 9억9400여 만원의 현충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모 건설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어 공개입찰 대비 1억16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지난 1월에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 업체와 9500여 만원에 목구조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목구조물 납품 실적이 없고 제품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데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로 불법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기자 glee@

오늘의 날씨

해출 06:06
해몰 18:58
달출 06:39
달몰 19:29

시설물 관리 주의

대체로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리고 비	22/26	보성	흐리고 비	21/25
목포	흐리고 비	22/26	순천	흐리고 비	22/25
여수	흐리고 비	23/26	영광	흐리고 비	22/25
나주	흐리고 비	22/26	진도	흐리고 비	21/26
완도	흐리고 비	22/26	전주	흐리고 비	22/26
구례	흐리고 비	20/26	군산	흐리고 비	21/26
강진	흐리고 비	21/26	남원	흐리고 비	21/25
해남	흐리고 비	21/26	흑산도	흐리고 비	22/26
장성	흐리고 비	21/25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0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5	남동~남	1.0~2.0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2.0	남동~남	0.5~2.0
서부 앞바다	남동~남	1.5~3.0	남동~남	1.5~3.0
남해 앞바다	남동~남	1.0~2.5	남동~남	1.0~2.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2:58 14:59	08:02 20:11
여수	09:39 21:57	03:25 15:37

◇주간 날씨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22/28	22/30	23/31	22/31	22/29	21/29	21/28

◇생활지수

	경고
	보통
	자외선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에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

대법, 대학교수 유죄 확정

자신의 차에 치여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라진 대학교수에게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2월 자정 무렵 도로를 건너던 조모(5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주고 현장에서 달

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해 4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진행했다.

1심은 우선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해 진행된 2심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도주에 해당한다”며 도주와 무면허·음주 운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집에서 자는 운전자 깨워 음주측정 요구 위법”

대법, 30대 무죄 확정

음주 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임의수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

월 자정 무렵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태국인인 문씨 아내의 동의를 받고 문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문씨는 집에서 나가라며 측정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새벽 1시42분부터 2시2

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문씨가 거부하자 헌법범으로 체포

했다.

/연합뉴스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거에 섹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런탈

수 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한달 3~4만원!!**

둘째, **전부 무료**

셋째, **맞춤 귀속형**

■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 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196,000원입니다.

■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